

「이름도 없는 한 끈」

작사 shu 작곡 오비요시유키

1. 어딘가에 얼어가던 사람이 숨을 죽이고 울고만 있어
누군가가 개인 하늘을 보고 「잘들 있을까...」 걱정을했다
텔레비전 화면속 산더미 조각들 흔들고 흔들린 나의 마음속에
무너져버리 경치 잃어버린 그 미소 떠내려가는 알지못할 이름

우리는 모두 이름도 없는 한 끈 한사람 한사람 서로연결되어
약하고 또한 작아 미약할 뿐이지만 강하고 견고히 서로 연결되어
그 많은 눈물 그 한숨 닦아줄 누군가가 있어
우리는 모두 이름도 없는 한 정 이니까 분명 혼자가 아니야
떨리고 떨리는 그 손을 내밀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닿는법
자 그 희망의 미소로 돌아가 우리들이 있어

2. 어딘가에 조용하게 들리는 건져진 작은생명 웃는다
내일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맑은 눈으로 또한 웃는다
잃어버린것과 부서져버린것 잃어버리고만 우리들의 추억
슬픔이 또 울음이 아직 그치진 않아 그래도 햇살은 다시 비추고

우리들은 이름도 없는 한 끈 한사람 한사람 서로연결되어
그 손을 살며시 잡아주고 이름도 모르는 그손을 잡아주면서
연결되어서 포개진 그손이 점점 더 커져서
우리는 모두 이름도 없는 한 정 이니까 분명 혼자가 아니야
떨리고 떨리는 그 손을 내밀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닿는법
자 그 희망의 미소로 돌아가 우리들이 있어